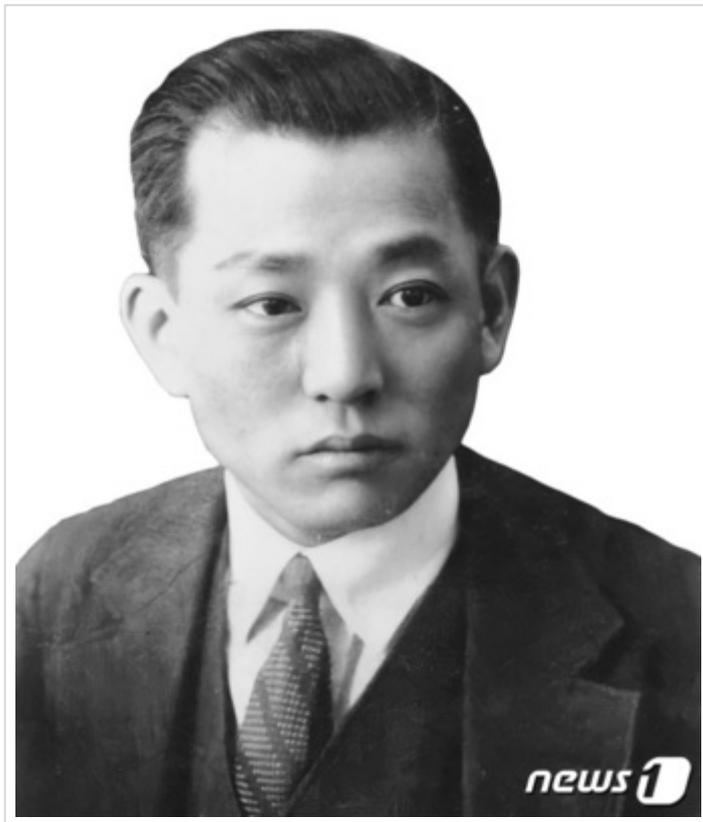


손기정 일장기 지운 이길용·송진우·여운형 선생 '8월의 독립운동가'

(서울=뉴스1) 장용석 기자 | 2021-07-30 10:55 송고



독립운동가 이길용 선생 (국가보훈처 제공) © 뉴스1

국가보훈처는 이길용·송진우·여운형 선생을 '2021년 8월의 독립운동가'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.

보훈처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언론계 종사자였던 이들은 손기정 선수가 1936년 8월 독일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 신문에 보도된 사진에서 일장기를 지운 '일장기 말소사건'의 실행자와 책임자였다.

당시 동아일보 체육부장이었던 이길용 선생은 '조선 청년이 세계를 제패했다'는 사실을 제대로 전할 수 없다는 데 분한 나머지 미술담당 이상범 기자와 함께 신문에 보도되는 손 선수 사진에서 가슴에 붙어 있는 일장기를 지워버렸다고 한

다.



독립운동가 송진우 선생 (국가보훈처 제공) © 뉴스1

이 선생과 이 기자 등 5명은 이후 종로경찰서로 끌려가 고문과 구타를 당했고, 풀려난 뒤엔 강제로 회사에서 면직됐다.

또 송진우 선생은 이 시기 동아일보 사장으로서 '일장기 말소사건' 이후 1937년 6월까지 10개월 동안 조선총독부의 신문 정간 협박에 맞서다 다른 임직원과 함께 강제 면직됐다.도

당시 여운형 선생이 사장으로 있던 조선중앙일보도 1936년 8월13일자 조간에 손 선수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운 사진을 실었다.



독립운동가 여운형 선생 (국가보훈처 제공) © 뉴스1

조선중앙일보는 총독부 등 당국의 대응에 앞서 같은 해 9월5일자 석간을 통해 자진 휴간을 선언했으나, 이후 속간되지 못했다.

이와 관련 정부는 이 선생에겐 건국훈장 애국장(1990년)을, 송 선생에겐 독립장(1963년)을, 그리고 여 선생에겐 대통령장(2005년)과 대한민국장(2008년)을 각각 추서해 공훈을 기렸다.

보훈처는 매월 광복회·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'이달의 독립유공자'를 선정해 발표한다..

<저작권자 © 뉴스1코리아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